



푸드사업부터
사회공헌까지
펫시장 잡아라
니



Life

CJ제일제당
햇반·비비고 앞세워
판매량 회복
L2



도움 필요한 곳에 쏙쏙... 지역사회 채우는 '사랑 나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아이엠아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보기술(IT)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단체의 도움이 정말 컸다.”

송기영 아이엠아이 경영전략본부장의 말이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아이엠아이는 남다른 ESG 활동을 위해 남다른 시선으로 접근한다.

특히 ESG 방향성 자체를 지역사회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사회 숨어있는 어려움 찾아내는 기업시민 '아이엠아이'

아이엠아이는 2002년 창사 이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본사 소재지인 전주를 기반으로 전북지역내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발굴해 실천하고 있다.

대표 활동에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희망캠퍼스'와 '드림유어드림', 지역 환경개선 프로그램 '벽화 재능기부', 무료급식소 '나눔아이' 등이 있다. 아이엠아이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기업, 장애인에게 재미를 선사하자

아이엠아이는 게임기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재미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대상 사회공헌활동 '다같이놀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국장애인연맹과 공식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2년 연속 장애인 e스포츠대회인 '디워(D-war)'를 후원했다.

장애인 대상 사회공헌활동 중 가장 주목 받은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뇌성마비 아동들이 함께한 '놀이공원 나들이 활동'이다. 평소 여행·레저 분야를 즐길 수 없던 장애 아동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동행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참여 아동들뿐만 아니라 임직원 만족도 또한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아이엠아이는 왜 사회공헌 활동에 진심일까

아이엠아이 자원봉사대, 줄여서 '아자봉'. 아이엠아이의 사회공헌 활동이 현재와 같이 전자차원의 대대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가 된 것이 바로 사내 동아리 '아자봉'이었다. 소수 직원들



- 1 아이엠아이가 지난해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바다별지역아동센터'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 아이엠아이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3년 연속 선정됐다.
- 3 황광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왼쪽)과 임상원 아이엠아이 팀장이 장애인 문화향유권 증진과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 4 아이엠아이가 전주시 서서학동과 교동 일대의 연탄 세대를 대상으로 온 세상 나눔 연탄 봉사활동을 실시한 뒤 임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이엠아이

전라북도 대표하는 정보기술 기업 지역사회 활성화 위한 ESG 펼쳐

2년째 장애인 e스포츠대회 '디워' 후원 뇌성마비 아동과 놀이공원 나들이도

사내 봉사동호회 구성, 사회공헌 활동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소외계층 도와

이 모여 봉사동호회를 만들고 지역 내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던 작은 활동들이 점차 전사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이제는 회사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아이엠아이 직원들은 "회식이나 MT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얻는 가치보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쓰였을 때 얻는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는 참여 이유와 함께 "아이엠아이의 사회공헌 활동은 임직원들의 마음에 자부심"이라고 말한다.

아이엠아이의 대표적인 ESG 활동은 ▲ 뇌성마비 장애아동 동행봉사 ▲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 연탄 나눔봉사 ▲ 무료급식소 나눔아이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다같이놀자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진행된 뇌성마비 장애아동 동행 봉사는 아동들과 아이엠아이 임직원 25명이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버스 승하차, 레크리에이션, 식사, 놀이기구 탑승 등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활동이다.

특히 해당 봉사활동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봉사자와 아동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꼼꼼한 사전준비를 실시했다. 이에 양측 뿐만 아니라 업계 사이에서도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전북지역 내 낙후 시설 및 기관 등의 외벽을 단장하는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벽화그리기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경로당 초입 벽에 인생의 흐름을 의미하는 사계절 풍경을 담은 등 선정 기관과 이용 주민들의 사연을 반영해 의미있는 봉사활동으로 진행해왔으며, 그러한 노력 덕분에 참여한 직원들과 벽화를 선물 받은 시설 혹은 주변 주민들로부터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송기영 아이엠아이 경영전략본부장은 "아이엠아이는 2002년 7월 창립한 이래로 전북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IT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 중에 지자체와 협단체의 도움이 정말

컸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보답하고 싶어 봉사활동에 적극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전주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및 전북대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이 과정 속에 진정한 지역사회발전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학 유기적 협력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이는 곧 회사의 방향성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엠아이는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CS 인력 100% 정규직 채용 등 직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마련하고 만족도 높은 복지제도는 강화한다. 이같은 내부 분위기는 봉사활동을 대하는 임직원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롤렉스 1순위 LG 오지환 "MVP 의미 두지 않아, 우승만 갈망" /사진 뉴시스
▲KBO리그 전설의 지도자 '3김' 김용용·김성근·김인식, 5차전 시구

▲조코비치, 연말 테니스 랭킹 1위 확정...통산 400주 1위 앞뒤
▲핸드볼 H리그 '우승 후보' 두산, 첫 경기서 SK에 승



▲클린스만, 작심 발언 "18살 이강인이 K리그라면 경기 뛰었을까"
▲황선홍 감독 "당연한 승리 없어...10회 연속 올림픽 간다" /사진 뉴시스